

## 전쟁이론 관점에서의 COVID-19 Pandemic 분석

한 승 조\*, 위 진 우\*\*

###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전쟁이론 관점에서의 COVID-19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전쟁이 국제적인 상황에 따라 그 패러다임과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근의 COVID-19도 언택트 문화를 특성으로 하는 New Normal의 시대를 야기하고 있다. COVID-19와 관련된 학술적 연구가 주로 의학, 관광, 경제적인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졌지만, 군사학이나 전쟁이론 측면에서의 연구는 미진한 형편이다. COVID-19가 국가의 생명과 재산상에 막대한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론 측면에서 COVID-19를 극복해야 할 적으로 간주 할 수 있으며, 전쟁이론 중에 전쟁의 속성과 양상, 승리요인 측면에서 현 COVID-19 상황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진다. 정성적 분석 및 설문을 통한 정량적 결과 COVID-19는 전쟁의 속성 및 양상 측면에서 실제 전쟁과 매우 유사한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 전쟁의 승리요인을 바탕으로 COVID-19의 효과적인 극복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분석적계층과정(AHP)을 통한 극복요인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명확한 목표와 동맹관계 확립이 COVID-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우선 시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Analysis of COVID-19 Pandemic in terms of War Theory

Seung Jo Han\*, Jinwoo We\*\*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OVID-19 situation in terms of war-theory and to find out ways to overcome it. Just as the war changes the paradigm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the current COVID-19 pandemic is bringing about the entry of the so-called "New Normal" era having the characteristics including untact culture. Although academic research on COVID-19 is mainly dealt with in terms of medical, tourism, and economics, the military research has not yet begun from the perspective of military science or war theory. In the concept of a comprehensive crisis that COVID-19 can cause enormous damage to the life and property of a country, it can be regarded as a target or enemy to be overcome. Among various war theories, the similarities with COVID-19 incident are analyzed in terms of the nature and aspect of the war and the factors of victory. Qualitative and questionnair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COVID-19 outbreak is very similar to war when considering a variety of war-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is research proposes ways to overcome COVID-19 based on the victorious factors of the past war, and predicts the impac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fter the end of COVID-19 pandemic.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iority of overcoming factors through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shows that clear goals and establishment of alliances should be prioritized for successfully overcoming COVID-19.

**Key words :** Analytic Hierarchy Process, Comprehensive Risk, COVID-19 Pandemic, Factors of Victory, War Theory

접수일(2021년 05월 01일), 수정일(2021년 06월 19일),  
게재확정일(2021년 07월 02일)

\* 국방과학연구소 미사일연구원(주저자)

\*\*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교신저자)

## 1. 서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COVID-19는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전쟁이 국제질서나 국가 위기관리체계에 패러다임을 바꾸듯이 현재의 COVID-19 Pandemic도 Untact 문화, 직장 근무형태, 관광업을 포함한 경제 전반의 영향과 같이 소위 New Normal 시대의 진입을 초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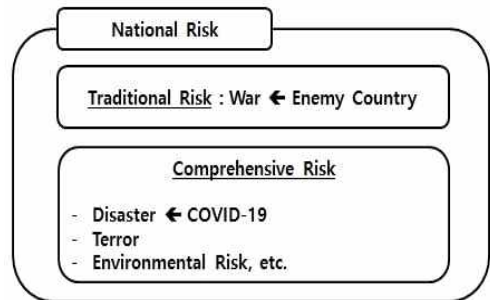
전쟁이 국가에 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악영향을 부여하는 물리적인 위기와 심리적인 공포를 동시에 초래하듯이, COVID-19도 전쟁의 물리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공포와 재발에 대한 미래 불확실성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하게 국가 및 국민에게 다가선 COVID-19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가 주로 의학 및 보건, 관광,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군사학이나 전쟁론적 관점에서 연구가 아직은 시작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쟁론적 관점에서 현 COVID-19 사태를 고찰하고, 지난 전쟁에서 승리요인을 기반으로 COVID-19 극복방안을 알아보는 데 있다. 또한 정성적인 유사점을 정량적인 방법 중의 하나인 분석적계층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하여 극복방안의 우선순위도 도출된다.

전쟁(War)은 사전적으로 자국의 의사를 상대국에 강요하기 위해 국가 간이나 이에 준하는 집단 간에 수행되는 조직적인 투쟁으로 정의하고, 적(Enemy)은 한 국가에 의사를 강요하기 위한 대립되는 국가나 집단으로 볼 수 있다. 국가차원에서 위기(Risk)는 전통적인 위기(Traditional Risk)와 포괄적인 위기(Comprehensive Risk)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쟁이 전통적인 위기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1]. 포괄적인 위기는 군사뿐만 아니라 비군사적인 상황이 국가를 위협상태로 이끌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는 테러·재난·기후변화·난민 등을 포함할 정도로 매우 포괄적이다.

전쟁의 개념에서 보면 COVID-19는 국가에 강요하기 위한 어떠한 의사가 있음을 학술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며, 국가나 집단이라고 보기에 모호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포괄적 위기의 관점에서는 재난(Disaster)의 일환으로 비군사적으로 국가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대상임에는 분명하다. 재난은 자연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으로 구분하며 불확실성(Uncertainty)·누적성(Accumulation)·복잡성(Complexity)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2], 이는 뒤에 설명될 전쟁의 삼위일체와도 일부 연관이 되어 있다.

또한, 군사적 관점의 적(Enemy)이 국가에 대립되는 물리적인 조직으로 본다면, COVID-19는 정의하기 어려우나 국가에 생명과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포괄적 위기의 개념에서는 한 국가가 극복해야 될 대상 혹은 적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그림 1) 국가적 위기와 COVID-19

## 2. 전쟁과 COVID-19 Pandemic의 유사성 분석(정성적 분석)

전쟁의 본질을 설명하는 많은 이론이나 연구가 존재하지만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의 삼위일체(Trinity)가 가장 널리 인용되고 있다. 프로이센의 군사전략가인 클라우제비츠는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지속적인 패배를 교훈삼아 『전쟁론(Vom Kriege)』을 저술하였으며, 삼위일체는 전쟁의 본질이 원초적 폭력성·확률과 우연·정치로의 종속성에 있음을 설명한다[3].

<표 1> 전쟁의 본질(삼위일체)과 COVID-19

전쟁의 본질	사 례	COVID-19	
		연관성	관련 사항
원초적 폭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25 미군 사망자 : 4만명</li> <li>• 베트남전 미군 사망자 : 5.8만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4월 말 기준 미국 사망자 57만명</li> <li>• 미국 4조 달러 관련 비용(예상)</li> </ul>
확률과 우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세계대전 : 사라예보 사건으로 촉발</li> <li>• 1차 세계대전 : 미국 참전(독일의 무제한 잠수함작전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우환에서 초기 발생 불분명</li> <li>• 국내 산발적 확진자(교회 등 집단 전파)</li> </ul>
정치로의 종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26 및 베트남전 : 냉전에 의한 정치이념의 수단으로 발발</li> <li>• 이라크전 : 미국의 중동에서의 안정적인 원유 확보 일부 영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20. 11월 대통령 선거 : 트럼프 재집권 실패</li> <li>• 국내 '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 : 여당 승리</li> </ul>

미국에서는 이러한 삼위일체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VUCA로 표현하기도 하며, 전쟁의 특성이 유동성(Volatility)·불확실성(Uncertainty)·복잡성(Complexity)·모호성(Ambiguity)의 영역임을 강조하지만[4], 삼위일체의 확률과 우연의 개념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원초적 폭력성은 전쟁이라는 것이 상호 견해가 다른 국가나 집단 간의 무력행위가 행해지는 것을 바탕으로 할 경우 전쟁과 연관된 국가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불가피함을 설명한다. 확률과 우연은 전장의 불확실성과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전쟁의 수행이외에도 사전에 고려되지 않았던 사건이나 판단 등 비이성적인 것에 의해서도 좌우될 수 있음을 말한다. 정치로의 종속성은 전쟁이 정치의 수단(Way)으로 활용됨을 말하며, 이는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냉전의 이념을 정치화하고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난 경우가 해당한다.

이러한 전쟁의 본질을 설명하는 삼위일체를 바탕으로 현 COVID-19를 바라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초적 폭력성과 관련하여 COVID-19는 이성적인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2021년 4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 사망자는 310만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COVID-19에 가장 큰 영향을 받

고 있는 미국의 경우 사망자는 57만명이 넘어서고 있고 이는 6.25 전쟁에서 미군 사망자 4만명과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자 5.8만명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경제적 손실과 관련하여 미국은 공공 및 민간분야 총 경제손실이 4조 달러(4,980조원)로 예측된 바 있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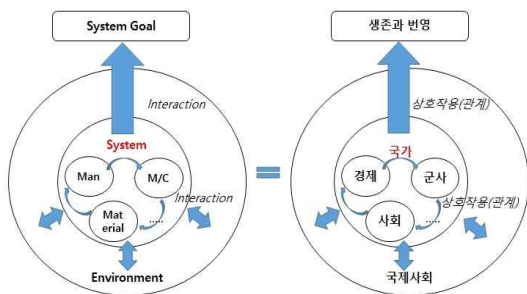
둘째, 확률과 우연의 개념과 관련하여 COVID-19는 이성적으로 발생 지역과 확산속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COVID-19가 중국 우한지역에서 초기에 발병한 것으로 언론에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도 이를 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신이 최근에 보급되어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상의 조치가 방역(Prevention of Epidemics)과 격리(Isolation)로 제한되어 있다. 국가의 위기조치 정책이나 의료수준 등에 따라 전 국민에 대해서 위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지역과 인원으로 COVID-19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외 유입자의 전면 차단을 수행하지 못했고, 일부 교회 등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누그러들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재난의 특성인 유동성·불확실성·복잡성의 기본적인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삼위일체의 확률과 우연의 개념이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정치로의 종속성과 관련해서는 현 COVI

D-19 Pandemic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에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전쟁이 정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을 삼위일체에서 말하고 있지만, 정치적 목적을 지닌 국가나 집단이 아닌 바이러스를 정치와 연관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다. 다만 COVID-19와 관련하여 이를 대응하는 국가의 위기 관리 능력은 국가의 국민 신뢰도와 연관이 있음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초기 COVID-19 확산 시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 정부가 COVID-19 대응을 모범적으로 한 국가로 세계적으로 알려짐에 따라 여권에 승리를 안겨준 바가 있다. 사례에서 보듯이 COVID-19도 정치와 연관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전의 양상은 크게 국가 총력전·비선형전·네트워크전·다차원 공간의 활용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6]. 위 현대전의 양상 중 총력전, 비선형전, 네트워크전 측면에서 COVID-19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 총력전은 현재보다 과거의 전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개념이지만, 전쟁이 정부와 군대에 의해서만 성패가 좌우되지 않고 경제규모·외교관계·과학기술 수준·국민의 참여정도 등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전쟁수행능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개념이다.



(그림 2) System Theory 측면에서의 전쟁(총력전)[7]

이는 현재 및 미래 전쟁 양상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는 전쟁이론으로 시스템 이론(System Theory) 측면에서도 전쟁의 주요 수행 주체인 정부와 군대는 지속적으로 다른 기관, 환경, 자원,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Interaction)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7].

시스템 이론과 연계된 국가 총력전 측면에서 COVID-19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COVID-19라는 위기(적)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전 역량이 동원되어야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다. 이성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 재난관리 측면에서 3가지가 기본적인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8].

- 중앙정부 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국가 조직이 총 동원되어야 한다.
- 분권적인 재난관리보다 중앙집권적인 대응이 효과적이다.
- 공공부문 외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는 전쟁의 총력전 개념과 매우 유사한 원칙이며, 현재의 COVID-19 사태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이 3가지 재난관리 원칙에 따라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의 시스템 이론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총력전 개념으로 COVID-19에 대응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나 사회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 확산, 군기관의 적극적인 군 의료진 지원,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연구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 2차 세계대전이나 6.25전쟁과 같이 지난 전쟁 및 전장(Battlefield)에서 선형(Linear)의 참호나 마지노선 개념을 적용한 선형전의 양상이 나타났지만, 무기체계 및 운용전술의 발달로 인해 비선형(Non-Linear)전의 특성이 현대전에 적용되고 있다. 현재 COVID-19 확산은 크게 해외 유입과 국내 집단 감염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주로 항공 및 항만에서의 우리나라 영토 외곽에서 주로 전선(Front Line)이

<표 2> 전쟁의 양상과 COVID-19

전쟁 양상	사례/이론	COVID-19	
		연관성	관련 사항
전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총력전</li> <li>* cf. 중세 전쟁 : 국가 및 귀족에 의한 제한전쟁</li> <li>System Theory : 정부 및 군대만의 전쟁은 현대전에서 불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재난관리 3원칙 : 중앙집권적 관리,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 협조 필수</li> <li>정부 및 군대 외 사회, 의료기관, 국제 관계 협력 필요</li> </ul>
비선형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차 세계대전 : 참호전, 마지노선 등</li> <li>6.25, 베트남전 : 게릴라전 및 특수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별 지역 확산은 비선형적인 특성 (해의 유입 제외)</li> <li>지방정부의 지역 거점 병원 및 시설 활용 대응</li> </ul>
네트워크전 (NCW, NCOE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사적 ICT 기술 활용 : 실시간 감시/정찰 및 타격</li> <li>전투에서의 OODA Loop 주기 획기적 감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CT 기술 및 방송 미디어가 정보수집 및 관련 정보 실시간 전파</li> <li>중앙정부의 대응책 마련 시간 감소 등</li> </ul>

개념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대략 선형전의 양상과 유사할 수도 있지만, 국내 집단 감염의 경우에는 비선형의 특성으로 전파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집권적인 통제 외에도 지자체별로 거점 병원 및 시설을 이용하여 방역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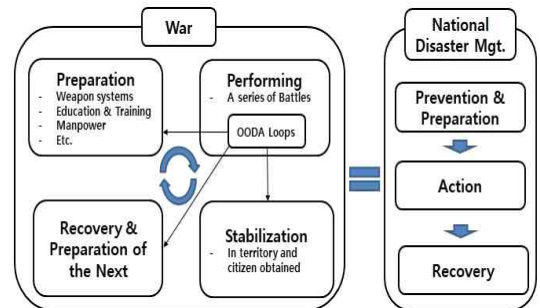
또한 전쟁에서 네트워크전(Network Warfare)은 NCW(Network Centric Warfare), NCOE(Network Centric Operational Environment)로 발전되었으며, 기본적으로 ICT 기술을 기반으로 제대 및 시스템을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OODA Loop 작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는 개념이다[6,9]. OODA Loop는 미 공군에서 John Boyd에 의해 발전된 전투 수행 프로세스로 “관측(Observe)-상황판단(Orient)-결심(Decide)-실행(Act)”의 Loop를 말하며, 크고 작은 전투는 이 Loop의 연속임을 설명한다[6].

좀 더 큰 틀에서 OODA Loop의 연속은 전쟁에 있어서 “준비-실행-안정화-복구”라는 큰 틀, 특히 “실행”에 많은 Loop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재난관리의 기본적인 프로세스인 “예방 및 대비-대응-복구” 개념과 유사하며, 이러한 관계가 (그림 3)에 개념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ICT 강국에서는 (그림 3)의

국가 재난관리를 위해 ICT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인터넷 포털 등에서는 세계 각국 및 국내 지역별 COVID-19 감염자 및 사망자 현황이 실시간 제시되고 있으며, 주요 방송사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염 상황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응조치를 거의 실시간에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지자체별로는 스마트폰을 통해 지역 감염자의 위치와 동선을 지역주민들에게 공유하면서 확산세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나라가 모범적인 대응국가로 지정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림 3) 전쟁 수행 과정과 국가 재난관리 과정

<표 3> 전쟁 승리요인과 COVID-19

전쟁의 승리요인	사 례	COVID-19 극복	
		연관성	관련 사항
명확한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몽골 통일과 세계정복</li> <li>* 징기스칸의 쿠릴타이(정책 협의체)를 통한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전쟁 목표 수립</li> <li>베트남 독립과 통일</li> <li>* 호치민은 미국 및 프랑스와 비교하여 전력이 절대적 열세임에도 조국 독립이라는 명확한 전쟁의 목표가 있었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재난관리 3원칙 중 : 중앙 집권적 관리</li> <li>COVID-19 조기 종식과 경제난국의 극복이라는 명확한 목표 존재</li> </ul>
기동전략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라크전 : 다국적군 우회 기동전략</li> <li>* 이라크 주력이 위치한 지역을 20만명 이상의 병력을 대규모로 우회하여 초기 유리한 전세 확보</li> <li>북베트남의 Hit and Run 기동전략</li> <li>* 미국 등에 전력상 부족한 부분을 전면전을 피하고 소규모 단위의 hit&amp;run 방식의 기동전술 활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백신 국내 도입 시 집중지역으로의 군 및 관이 협동으로 신속 수송 집단 구성</li> </ul>
정보수집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폴레옹 프랑스군의 전장 지도와 정보수집</li> <li>* 울퉁전트 시 사진 도로 및 강 등의 지형 조사 후, 작전계획에 반영</li> <li>이라크전 : 정보 수집 후 전투</li> <li>* 인공위성과 특수부대를 통한 정보수집</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CT 기술 및 방송 미디어가 정보수집 및 관련 정보 실시간 전파</li> <li>해외 입국인원 정밀검시 및 자가 격리</li> </ul>
군수지원체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랑스군의 현지조달 위주의 군수지원체계</li> <li>* 전투 중간지점에 보급창고 마련, 현지 조달을 통한 지원체계 적용</li> <li>이라크전 : 육해공 통합 군수지원체계</li> <li>* 50만명 인원과 50만톤 군수품을 전투지역에 공중 수송(육해공 통합 수송)</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별 진료소, 음압병상 마련</li> <li>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마련</li> </ul>
군사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베트남군의 4세대 전쟁 수행</li> <li>* 게릴라전을 기반으로 한 4세대 전투 수행</li> <li>다국적군의 최첨단 무기를 통한 정밀공격</li> <li>* 첨단무기체계 확보 위주의 군사혁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외 연구기관에서의 백신개발</li> <li>향후 유사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의대정원 증대 및 공공의료원 확충을 위한 정부 노력(미정)</li> </ul>
동맹관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라크전 : 다국적군 결성을 통한 이라크 고립화</li> <li>* UN을 통한 다국적군 구성</li> <li>몽골군의 선동맹 후 공격의 원칙</li> <li>* 인근 국가와 선동맹 후 적국과의 전쟁(주변국과 동맹 후 카다르 공격, 서하와 동맹 후 금나라 공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외에서 백신 개발 시 수입 후 국내 적용</li> <li>국내 진단키트를 관련 국가에 지급</li> </ul>

\* 정보연의 연구[10]을 기반으로 수정 후 반영

고자 한다.

앞에서는 전쟁의 본질과 특성이 현재 국가에서 COVID-19를 대응하는 것과 매우 유사함을 알아 보았다. 본 장에서는 군사학적 관점에서 전쟁의 승리요인과 관련된 전쟁이론 및 전쟁사례를 바탕으로 COVID-19의 극복방안에 대한 것을 논의하

고자 한다. 조미니의 "결정적 지점 집중론", 리델하트의 "간접 접근론", 앤드류 마샬의 "RMA(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를 바탕으로 전쟁에서의 승리요인이 연구된 바 있다[10].

결정적 지점 집중론은 전쟁의 명확한 목표 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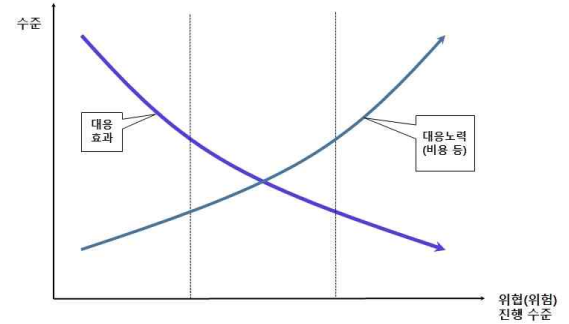
서 아군이 획득이나 점령하였을 경우 적이 강화를 요청할 수 있는 지점에 아군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10]. 간접 접근론은 전쟁에서 적국의 인명을 대량으로 살상하여 승리하는 것은 어리석으며, 이보다는 적의 주력을 가급적 회피하고 적의 핵심부를 타격하고 관련된 지휘통제통신을 마비시키는 것이 현대전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다는 이론이다[11]. RMA는 군사혁신으로 전략, 전술, 무기체계 등을 적보다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이를 전쟁에 활용한다는 개념이다[12]. 이는 미국과 소련중심의 냉전시대에 핵무기 및 미사일, 위성 분야에 있어서 경쟁했던 경우가 20세기에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보연은 상기 전쟁 승리 관련 이론을 바탕으로 시대순으로 몽고전쟁, 나폴레옹 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등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명확한 목표선정, 기동전략 적용, 정보수집체계 구축, 군수지원체계 확보, 군사혁신, 동맹관계 확립을 승리의 요인으로 제시하였다[10].

<표 3>은 전쟁의 승리요인과 COVID-19와의 연관성을 요약한 것으로 기동전략 적용은 연관성이 부족하지만, 다른 5개의 요인들은 COVID-19 극복을 위한 전략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쟁의 승리요인과 관련하여 COVID-19를 다른 나라보다 잘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미국은 명확한 목표와 관련하여 '20년 11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고려하여 사태 관리의 역량이 초기에 COVID-19로 모아지지 않았다. UAE는 (군사)혁신과 관련하여 진단키트 등 의료체계의 미비로 우리나라가 진단키트를 급하게 지원해 준 바 있으며, 북한 등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정보체계 구축 측면에서 명확한 감염자와 사망자 등이 종합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표 3>의 승리요인 중 모두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사전에 준비한 것이다. (그림 4)에 표현된 대응효과 이론에 의하면 초기에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임을 알려주고 있으며[7], 이는 시스템 이론에서 Heinrich 법칙과도 유사하게 조기 예방

과 조치가 중요함이 이번 COVID-19 사태에도 적용됨을 알 수 있다.



(그림 4) 대응효과모델[7]

### 3. 전쟁과 COVID-19 Pandemic의 유사성 분석(정량적 분석) 및 극복요인의 우선순위 도출

2장의 정성적인 분석은 주로 전쟁 사례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전쟁과 COVID-19의 유사점을 분석한 것으로, 유사성의 타당성(Validity)을 위해서는 정량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가 집단(Expert Group)을 구성하여 유사성의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전문가 그룹은 전쟁이론과 COVID-19 상황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군생활 18년 이상의 영관 장교 15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46.5(±3.5)세, 군생활 경험은 평균 23.9(±3.9)년이었다. 설문 방식은 1:1 대면으로 <표1, 2, 3>의 내용을 보여주고 유사성을 기준으로 5점 척도로 의견을 표시하도록 하였다(5점에 근접할수록 유사성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음). 다만 정성적인 방법으로 사전 판단한 내용(O, △, X)과 관련사례는 제외하여 저자의 의견이 설문 시 반영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림 <4>는 전쟁의 본질, 양상, 승리요인 측면에서 유사성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4> 전쟁과 COVID-19 Pandemic 유사성 분석

구분	내용	평균	표준편차
전쟁의 본질	원초적 폭력성	3.9	0.7
	확률과 우연	3.8	0.7
	정치로의 종속성	<b>2.3</b>	0.8
전쟁의 양상	전면전	3.6	1.0
	비선형전	3.9	0.9
	네트워크전	3.3	0.7
전쟁의 승리요인	명확한 목표	4.2	0.7
	기동전략 적용	<b>1.9</b>	0.8
	정보수집체계 구축	3.6	0.7
	군수지원체계 확보	3.7	0.6
	군사혁신	3.9	0.6
	동맹관계 확립	3.7	0.6

<표 4>에서 보듯이 전쟁의 본질 측면에서 정치적 종속성은 원초적 폭력성과 확률/우연 항목보다 유사성에 동의하는 정도가 낮았다. 또한 전쟁의 승리요인 중에서 기동전략 적용은 타 항목에 비해서 유사성에 동의하는 정도가 매우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정성적으로 분석한 내용에 타당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쟁의 승리요인 측면에서 COVID-19의 극복 요인을 도출한 것 이외에도 정책적 활용 등을 위해서 극복요인의 우선순위(Priority)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표 3>의 승리요인 6개 중에서 <표 4>에서 유사성이 낮게 나온 기동전략 적용을 제외한 5개(대안)를 활용하여 전문가 그룹으로 하여금 분석적계층과정(AHP)을 적용하였다.

AHP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문제를 주로 평가기준과 대안들로 계층화하여, 전문가들로 하여금 1:1 쌍대비교를 통해 의견을 묻고, 정량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7,13]. 전문가 집단은 앞서 구성된 15명이 동일하게 이용되었으며, 유사성을 기

준으로 <표 4>의 전쟁의 승리요인 5개(명확한 목표 A, 정보수집체계 구축 B, 군수지원체계 확보 C, 군사혁신 D, 동맹관계 확립 E)를 쌍대비교할 수 있도록 설문을 실시하였다. 15명의 쌍대비교행렬은 기하평균으로 하나의 Matrix로 통합되었으며,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일관성 비율은 0.1이하일 경우 AHP 평가의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한다[14].

<표 5>는 쌍대비교행렬(기하평균 종합), 정규화된 쌍대비교행렬, 최종적인 항목별 Weight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CR은 0.02로 전문가 집단의 평가 일관성이 유의함이 존재하였다. CR은 Consistency Index(CI)를 Random Index(RI)로 나눈 것으로 [15,16], CI는 0.03로 계산되어 지고 RI는 항목 5개를 고려하여 1.12로 분석되었다.

<표 5> AHP 분석 결과

쌍대비교행렬(기하평균 종합-15명)					
-	A	B	C	D	E
A	1	5.59	3.56	5.56	1.44
B	0.18	1	0.27	0.93	0.16
C	0.28	0.28	1	3.81	0.24
D	0.18	1.07	0.26	1	0.19
E	0.69	6.33	4.22	5.40	1
쌍대비교행렬(정규화-15명)					
-	A	B	C	D	E
A	0.43	0.39	0.38	0.34	0.48
B	0.08	0.07	0.03	0.06	0.05
C	0.12	0.02	0.11	0.23	0.08
D	0.08	0.08	0.03	0.06	0.06
E	0.30	0.44	0.45	0.32	0.33
최종 우선순위(Weight)					
-	0.40	0.06	0.11	0.06	0.37



5개의 항목 중 명확한 목표 설정과 동맹관계 확립이 다른 3개의 요소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극복을 위한 의지와 정책이 명확하게 정립되고 시민들이 이에 동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COVID-19의 특성상 국내 문제가 아닌 세계적이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맹관계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쟁론적 관점에서 현 COVID-19 상황을 고찰하여 보았고, 전쟁의 본질이나 양상 그리고 전쟁의 승리요인 측면에서 COVID-19 사태가 전쟁의 상황과 매우 유사함을 알아보았다. 특히, 과거 전쟁의 승리요인을 알아보고 당시 승전 국가의 승리요인 측면에서 COVID-19 극복방안을 연계시켜 보았으며, AHP를 이용하여 극복방안의 우선순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쟁의 본질, 양상, 승리요인 측면이 COVID-19 상황에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정성적인 분석과 설문을 통한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될 수 있었다. 특히, 승리요인들의 우선순위를 AHP를 통해 분석해 보았을 때, 극복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명확한 목표설정과 범세계적인 Pandemic을 고려하여 동맹관계 강화가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 COVID-19 사태의 극복뿐만 아니라 이후에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정책적인 고려사항이다.

‘21년 4월 시점에서 COVID-19의 종식을 예견하기는 어려우나 전쟁 이후의 국제사회에서 재편을 살펴봄으로써 일부나마 COVID-19 이후의 국제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첫째, 전 세계적인 위기인 COVID-19를 모범적으로 극복한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한층 높아진다. 1900년대 초반까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국제사회에 미치는 국가영향력이 높았지만,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 제 1의 패권국가로 도약한 바 있다. 일본은 세계대전의 패망에도 6.25를 통해

패망의 어려움을 벌어난 계기를 만들었다. 물론 COVID-19라는 그동안 고려하지 않았던 국가적 적(Enemy)과 싸워서 이기는 것과 전통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 하지만 COVID-19의 조기 극복 및 타 국가로의 긍정적인 지원이나 영향은 국격의 상승, 국내 제품의 긍정적인 브랜드 평판 향상 등으로 경제적인 위상이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재우 등의 연구에 의하면 COVID-19로 인해 항공, 여행, 관광사업 등 많은 어려움을 각 국가마다 직면에 있지만, 선제적으로 조기에 종식시킨다면 사기 분야에서 더욱 발전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제시하였으며, 특히 의료분야는 타 사업에 비해 획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이 영향력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였다[17].

둘째, 국가 위기의 극복은 전 국민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기, 적절한 성공적인 대처는 주변국과의 정치/외교적 관계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 현대 전쟁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력전의 양상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COVID-19의 극복도 정부나 지자체, 의료기관에서의 노력만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조기에 종식을 이룬다면 주변국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주변이 강대국으로 둘러 싸여있고 바로 직면한 북한이 있는 가운데 전 국가적 단합을 이번 사태에 보여준다면 정치/외교 측면에서도 상당한 이득이 될 것을 판단한다.

셋째, 국내 인력 및 업체의 해외 진출 증가 및 국외 인력 및 업체의 국내 진출 증대가 예상된다. 우선 성공적인 대처는 타 국가에 모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알리는 국외 진출 인원이 증가하며, 기술적으로 의료업계의 해외 진출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또한 모범적으로 대처를 잘 한 경우 국외에서도 국가위기 대응이 우수한 국가에 인력이나 업체 진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또한 의료분야 및 생명(공학) 분야에 국외 유학생의 유입이 증가되어 대학의 학생인원 확보 및 재정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K-POP으로 인해 2000년대 이후 국외 유학생이 국내 대학

교을 찾는 증가세가 있는 점과 유사하다.

본 연구는 군사학 기반의 학문적 관점에서 COVID-19를 살펴본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지만, 다음의 연구제한사항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후 연구(Further Research)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수행된 시점은 COVID-19 사태가 정상적으로 종식된 시기가 아니므로 정상적으로 종식된 이후의 과정을 전쟁 종식의 과정과 연계되어 연구될 필요가 있다. 전쟁 이후 차후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전쟁의 성과를 전훈분석의 개념으로 상세하게 군 및 관련기관에서 수행한다. 이와 동일하게 COVID-19 종식 후에 전훈분석 관점으로 종식 과정을 과학적, 통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추후 재발될 수 있는 유사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COVID-19 종식 후 국제관계 변화를 크게 3가지로 예측해 보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예측과 유사한지 검토해 보고 향후 적용방향에 대한 학술적 연구도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이장규, “군사위기 대응체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징후관리, 초기대응, 추후대응을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 [2] 김태윤, 여차민, "재난관리이론의 관점에서 본 실패론의 함의", 한국행정연구, 제 15권, 제 2호, pp. 245-272, 2006.
- [3] 김태현, “클라우제비츠 ‘전쟁론’에 대한 재인식: 전쟁의 존재론적 해석과 ‘국민’의 역할을 중심으로”, 군사, 제 82권, pp. 75-107, 2012.
- [4] 김태형, 오경택, “클라우제비츠 삼위일체의 현대적 해석”, 군사연구, 제 149권, pp. 131-154, 2020.
- [5] CNN, "US businesses will suffer a \$4 trillion decline due to coronavirus, hedge fund predicts", 2020. 3. 20 보도.
- [6] 이종용, “4차 산업혁명시대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방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 [7] 한승조, “한반도 환경에 적합한 군사적 기상 조절 기술 도출과 구축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 [8] 이 성, “재난관리 정책변동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중국 지진대응 정책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 [9] 장 용, “전시 북한의 핵무기 사용 억제를 위한 군사전략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 [10] 정보연, "전쟁 승패의 군사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 [11] 서명현, "리텔하트의 간접접근전략을 적용한 해병대 작전수행개념 정립방안 연구", 전략논단, 제 28 권, pp. 129-157, 2018.
- [12] 설인효, "군사혁신(RMA)의 전파와 미중 군사혁신 경쟁 : 19세기 후반 프러시아-독일 모델의 전파와 21세기 동북아 군사질서 ", 국제정치논총, 제 52권, 제 3호, pp. 141-169, 2012.
- [13] 이세호, “가상현실 기반 국방 교육훈련체계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업화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0.
- [14] 이세호, 한승조, 박경혜, “가상현실 기반 국방 교육훈련체계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제 15권, 제 6호, pp. 1117-1133, 2020.
- [15] 한승조, “미사일 시험을 위한 대안결정의 정량적 분석: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한 국외 시험장 선정을 중심으로”, 융합보안논문지, 제 20권, 제 4호, pp. 3-12, 2020.
- [16] 한승조, 이승민, “지상작전과 연관된 의사결정 고려요소의 정량화 방안 : 전장정보분석의 접근로 평가요소를 중심으로”, 융합보안논문지, 제 19권, 제 2호, pp. 129-136, 2019.
- [17] 최재우, 최영택, 주위, “COVID-19에 의한 관광산업 현황분석 및 대응방안”, 관광경영학회, 제 24권, 제 3호, pp. 29-48, 2020.

———— [ 저 자 소 개 ] ————



한 승 조 (Han, Seung Jo)  
 1998년 2월 육군사관학교 학사  
 2002년 2월 KAIST 공학 석사,  
 아주대학교 경영학 석사  
 2011년 9월 미)뉴욕주립대(버팔로)  
 공학 박사과정 수료  
 2013년 2월 단국대학교 공학 박사  
 2019년 9월 충남대학교 군사학 박사  
 email : seungjo1651@add.re.kr



위 진 우 (We, Jinwoo)  
 1998년 2월 육군사관학교 학사  
 2003년 2월 국방대학교 국방관리  
 석사  
 2020년 8월 충남대학교 군사학 박사  
 과정 수료  
 email : wejinwoo7408@naver.com